

운송

우체국택배, 노사간 충돌로 배송 차질 전망

2013. 9. 13

운송
Analyst 김민지
02.3779-8843
mjkim@etrade.co.kr

추석 전까지 합의 못하면 배송 차질 발생, 장기화될 경우 타 택배사 반사이익 가능

8월 우체국택배의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 시행으로 약속과 달리 택배기사의 임금이 낮아졌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에 시정 요구안을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답변이 이번주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대위는 10일부터 자체 검수를 통해 중량이 다른 물건의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 배송 차질 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화될 경우 기존 화주들의 이탈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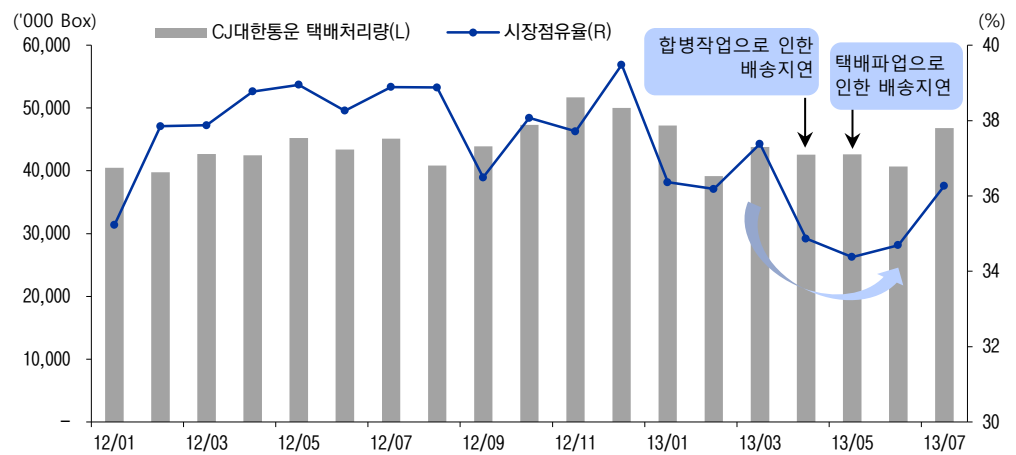
8월 우체국택배의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 시행에 따라 5kg이하 택배 수수료는 기존 967원에서 990원으로 5% 인상되고 5kg이상 택배 수수료는 최대 7%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하루 130개의 수량제한과 수수료 인상 시, 전산망에 올라온 택배 중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조항이 추가됐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5kg 이하 택배 비중이 80%~85% 수준으로 높고 택배의 실체중량과 수수료 지급기준이 되는 표시 중량을 우정본부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의 계산과 달리 임금이 7~20만원 삭감되었다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정사업본부에 시정 요구안을 통보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주까지 답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비대위는 10일부터 자체 검수를 통해 중량이 다른 물건의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

5월 CJ대한통운 택배파업의 기억, 타 택배사 반사이익 가능

노사가 추석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사실상 배송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며 장기화될 경우 화주의 이탈 등으로 다른 택배사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우체국택배의 노사간 충돌은 지난 5월 CJ대한통운의 파업으로 화주들이 이탈하며 점유율이 -2~3%p 가량 하락했던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그림1] CJ대한통운의 월별 물동량 및 점유율 추이



자료: CJ대한통운,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민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